

나

나

이 땅에

이 땅에

왔던데

왔다가

chogwā zine  
issue: 12  
August 2022

서문  
소제

3

Intro  
Soje

나 이 땅에  
왔당은에  
황금녀

6

나 이 땅에  
왔다가  
황금녀

Na i ttange  
watdangeune  
Hwang Geum-nyeo

8

Na i ttange  
watdaga  
Hwang Geum-nyeo

I Came to  
This Land And  
tr. Sung Ryu  
류승경

10

I came to  
this earth  
tr. grace  
그레이스

I Came to  
This Earth  
tr. Dahyun Kim  
김다현

12

As I Came to  
This Land  
tr. Calista  
황유림

after reaching  
this land  
tr. Deborah Kim  
김테보라

14

I came to  
this land  
tr. Stine An  
안수연

In Coming to  
this Earth  
tr. Dabin Jeong  
정다빈

16

As I Am Sent to  
This Island  
tr. Jaewon Che  
최재원

Born on  
this Island  
tr. Erik Sandstrom  
에릭 샌드스트럼

18

Born unto  
this earth, I  
tr. Si Yon Kim  
김시연

I Am Here  
tr. Emily  
에밀리

20

my brief time  
on this earth  
tr. Hoyoung  
호영

I arrived upon  
this earth and  
tr. Eunice Lee  
이유나

22

I I came to  
this land  
tr. Lauren  
지현 Kim

As I came to  
this land  
tr. Jin Oh  
오성진

24

Ever since  
I came to this land  
tr. Jin Oh  
오성진

I came to  
this land, and then  
tr. Sal Kang  
강에서

26

I came to  
this land, and  
tr. Jennifer Gayoung Lee  
이가영

I have come to  
this land  
tr. Giulia Ratti  
줄리아

28

To This Land  
I Did Come  
tr. eyw  
에원

To This Ground,  
I Found My Way  
tr. Emma Kay  
엠마

30

To this earth I came  
and now I go  
tr. Hannah Kim  
김한나

After Coming to  
This Land  
tr. Gene  
진

32

While on  
this earth  
tr. Ainee Jeong  
정아인

this island  
i landed i  
tr. Jack Jung  
정새벽

34

I Landed Here,  
Then  
tr. Anna Toombs  
툼스안나



저는 성인이 되어 서울에 오기 전까지는 캘리포니아 교포 억양과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아주 요상한 한국어를 구사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이민자로 자라면서, 뿔속까지 갱상도 분인 부모님과 사투리로 대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초과>를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 사투리 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사투리만큼 정체성과 불가분한 것이 또 없고, 번역가마다 본인이 자라온 환경과 자신이 선택한 공동체의 문화를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번역문에 반영시킬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번역 수업에서 사투리 대사를 어떻게 다룰까 토론하다가 나온 뻔한 결론은, '한 언어의 사투리를 다른 언어의 사투리로 대체할 수 없다'였습니다. 미국 남부 출신 캐릭터를 다짜고짜 부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이상하잖아요?

구수한 말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쳐도, 한 작품에 다양한 사투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강원도 사투리와 북한어는 어떤 영어로 치환해야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전달될까요? 그리고 그건 자막으로 획획 지나가도 불특정 다수인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일까요? 이러한 이유로 사투리로 쓰인 대사가 미묘한 표준 영어로 번역되는 것 같습니다.

허수경 시집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에는 시마다 두 개의 판본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서울로 상경한 시인은 표준어로 시를 쓰고, 다음 장에서 "진주 말로 혹은 내 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할 때 앞의 자막 번역 예처럼 사투리를 무시해서 될 일도 아니고 두가지 버전을 어떻게라도 만들어야 해서 몇 년째 고민 중입니다. (니는 만다꼬 이리 고생을 사서 하노... 진짜 와이카노...)

허수경 시인님의 부제를 곱씹어 봅니다. "진주 말로 혹은 내 말로." <초과> 참여자 중에는 한국인 부모님 밑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대도 있고,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다가 계속 왔다

Before I moved to Seoul for the first time as an adult, I spoke Korean in a Gyeongsang dialect– and California English–inflected gyopo accent. You see, I was born in Daegu and raised in Northern California by people from the Gyeongsang Province of South Korea.

This partly explains my perennial obsession with attempting a satoori issue of *chogwa*. Satoori, or regional dialect, is inextricable from cultural identity, and I was curious how other translators would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incorporate their upbringings and chosen affinities.

A translation workshop I'd taken years ago touched on instances of satoori dialogue in fiction and film. It was framed as a discussion, but the conclusion was clear: A dialect in one language cannot be replaced with another. There is no "effective equivalent" because dialects are not interchangeable. (Duh!)

Due to its long history of on-screen representation, however stereotypical, Southern American English is one of the most famous dialects and likely the one that even non-Southerner translators will attempt. Same goes for the Gyeongsang dialect. But it's weird if not problematic to render a Southerner of any race into a Busan native, no?

Even if you think it's quirky and fun,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film *Welcome to Dongmakgol*, which features multiple dialects including those from Gangwon Province and North Korea? What are the analogs there? Whether you decide on Welsh English or Philippine English, how can you ensure that all audiences can understand the subtitles?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성장기의 상당 부분을 부모들의 문화 밖에서 보내온 제3의 문화 출신 third culture kids도 있는데... 그럼 우리들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사투리 번역을 시도하면서 <초과>의 번역가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할지 궁금했고, 무엇보다 여러 접근 방식을 모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투리로 쓰인 시는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사투리는 말 그대로 말이고 글로 기록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일까요? 또한 특정한 방언이 왜 더 자주 나타나는지, 그것은 어떤 패권을 드러내는 지 이의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사투리 특별호를 품고 있다가 39년생 제주 조천읍 함덕리 출신이자 제주도 토박이이신 황금녀 시인님 작품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주어의 리듬감과 삶에 대한 통찰력에 바로 매료되었지요. 알고보니 시인님은 1960년 MBC 창사기념 문예공모 수기 당선 이후로 꾸준히 제주어로 시를 써오셨고, 어린 독자들이 음과 뜻을 이해하기 쉽게 표준어 번역도 함께 출판해오셨습니다. 팔순에 **방송 출연**도 하시고 네번째 시집을 내실 정도로 열정이 넘치시고, 2017년에 진동식 번역가와 <이제 호쓸 식상 베 더레 나가보카> (표준어로 <이제 제주어도 세계로 좀 나가볼까>) 영어번역서도 내셨습니다. 제 요약보다 **인문360**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글을 추천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유네스코가 2010년에 제주어를 사투리가 아니라 고유 언어로 인정하며 소멸위기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심각한 소멸위기의 언어'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어보전회에 의하면 도민의 1~2%만이 제주어를 제대로 쓰며 사용자는 대부분 8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주 억압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니 소개를 다짐했습니다.

직접 만나뵈려 가야겠다는 욕심을 가진 가운데, 종이잡지클럽에서 <초과> 10호를 주문해주시고 행사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운명처럼

And can you claim that dialect as your own? Who does dialect belong to? Is that even the right question? Unsurprisingly, many *chogwa* contributors are diasporic Koreans with unique migration histories, and I wondered if they would feel similarly conflict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I also found poetry in dialect to be relatively scarce. Is it because dialects are, by definition, vernacular and less likely to be recorded in writing? Then I wondered why certain dialects were more frequently represented. What hegemony did that reflect?

Finally I came across the poetry of Jeju native Hwang Geum-nyeo, born in 1939. Hwang writes poetry in Jejueo and publishes them alongside her own translations into standardized Korean with the goal of preserving and revitalizing the language for younger generations. I was immediately captivated by her simple yet playful use of language, as well her insight into life as a survivor of the turmoils of modern Korean history.

Before this issue, I only knew that the Korean spoken on Jeju Island was very different from mainland Korea, without examination into the **difference** between dialect and language. I learned that UNESCO had added Jejueo to its Atlas of the World's Endangered Languages in 2010. Less than two percent of the island's population speaks the language, and today it is spoken fluently only by people who are more than eighty years ol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language was violently repressed following anti-communist killings on the island before the Korean

종잡클은 제주점도 있어서 시인님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일다 출판사의 후원으로 아페퍼 이희정 디자이너님 섭외와 멋진 인쇄물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월 14일 합정점 행사에서는 번역가들이 모여 낭송을 했습니다. 본인 목소리로 발화하는 것 자체가 번역 같다고 김민성 대표님께서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5월 21일 제주점 행사에서는 황금녀 시인님의 낭독과 제주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을 위해 체력을 비축하고, <나 이 땅에 왔다가> 연장편을 준비하시고, 김소월 시 <진달래꽃>을 제주어로 번역해오셨습니다. 세 가지 버전이 있어서 '1인 <초과>'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경상도로 번역되어 <애린 왕자>로 출판된 게 떠오르기도 하고, 원작이 유명할 수록 여러 번역본의 개성을 음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성 님의 제주점 **후기** 또한 놓치지 말아주세요!

한영 번역 자체로는 제주어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시와 우리 모두의 시도가 출발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시 한 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War. This downloadable **booklet** on the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explains in accessible terms the history of Japanese colonialism, U.S. imperialism, and Jeju's struggle for self-determination.

While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identify Jejueo as an "unintelligible Korean dialect," many scholars assert that it is a language with its own vocabulary and grammar.

The poet believes this as well and corrected me whenever I called this a "dialect" issue out of habit at our live event in Jeju. So really, this is a trilingual issue in celebration of Jejueo, as a small act of protest against linguistic.

Translation into English alone cannot preserve Jejueo. All I can hope is that this issue, like all issues, in all of our passionate approximations, sparks an interest in the source language. So let us begin here with a single poem—

제주어 시

표준어 시

## 나 이 땅에 왓당은에

황금녀

나 이 땅에 왓당은에  
비밋비밋 ㅎ당은에  
주침주침 ㅎ당은에  
이녁이영 디 ㅎ당은에  
지뽐제완 눈물도 제웁단에  
백발이 브름광 너울너울 ㅎ당은에  
험벅눈 팡팡 누리는디  
절국엔 눈사람이 뒤당은에  
경해도 누시 석석 해불질 안 ㅎ는  
이 기리웁  
아적 ㄱ진 나 직시로구낭아

<동근 돌이 청명케 넘어갔어고>  
(도서출판 담원, 2017)

## 나 이 땅에 왔다가

황금녀

나 이 땅에 왔다가  
머뭇거리다가  
서성이다가  
그대와 함께 머물다가  
웃음이 울음이 울먹이다가  
백발이 바람과 너울너울 나부끼다가  
함박눈 펄펄 내리는데  
마침내 눈사람이 되다가  
그래도 끝내 식지 않은  
이 그리움  
아직은 내것이구나

<동근 돌이 청명케 넘어가네>  
(도서출판 담원, 2017)

황금녀 시인님의 낭송을 들어보세요.

Source poem in Jejueo

# Na i ttange watdangeune

Hwang Geum-nyeo

Na i ttange watdangeune  
bimitbimin htwitangeune  
juchimjuchim htwitangeune  
inyeogiyeong htwinndi htwitangeune  
jippeumjewan nunmuldo jeupdane  
baekbari btwireumgwang neoulleoul htwitangeune  
Heombeongnun pangpang ntwirineundi  
jeolgugen nunsareumi dwedangeune  
gyeonghedo ntwisi seokseong hebuljil anhtwinneun  
i girium  
ajeokkktwichin na jiksirogunanga

Source poem in Standardized Korean

# Na i ttange watdaga

Hwang Geum-nyeo

Na i ttange watdaga  
meomutgeoridaga seoseongidaga  
geudaewa hamkke meomuldaga  
useumi ureumi ulmeogidaga  
baekbari barangwa neoulleoul  
nabukkidaga hambangnun  
peongpeong naerineunde  
machimnae nunsarami doedaga  
geuraedo kkeunnae sikji aneun  
i geurium  
ajigeun naegeosiguna

Dunggeun dari cheongmengk neomeogamseogo  
(Damron Publishing, 2017)

Dunggeun dari cheongmengk neomeogane  
(Damron Publishing, 2017)

 **Listen** to the poet read the poem first in Jejueo, then standardized Korean.

Source poem in Jejueo

Source poem in Standardized Korean

이 시는 생존을 노래하고, 26편의 번역본은 화자의 시공간적 위치를 돋보이게 합니다. 생존의 경험이란 회상적이면서도 연속적으로 느껴지기에 시제가 단순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까지 다양하게 표현되었나 싶습니다.

11행 중 첫 8행에서는 동사가 주축이 됩니다. 즉, 화자가 일생 동안 한 행동을 나열한 셈입니다. (행동보단 삶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한국어에서는 주어-목적어-동사 어순에 따라 각 행의 끝에 접속사와 활용된 동사가 반복됩니다.

'~다가'의 문법을 계승하기 위해 안나 톰스 님, 강예서 님, 정아인 님, 이가영 님은 각 행 끝에 접속사 **and**와 **then**을 반복합니다. 줄리아 님은 과거 진행 시제를 활용해 각 행을 **~ing**으로 마칩니다. 류승경 님은 각 동사 뒤에 **some**을 덧붙이고, 오성진 님은 **you hear?**이라는 자신만만한 후렴구를 등장시킵니다. 엠마 님은 제대로 된 각운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번역자들은 행마다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김데보라 님과 진 님은 전치사 **after**, 황유림 님과 최재원 님은 **as**로 행을 시작합니다. 에밀리 님의 **having**, 엠마 님의 **and**, 그리고 예원 님의 **did** 또한 눈에 띕니다.

연이은 동사 이후 시는 화자의 "이 그리움 | 아직은 내것이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직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암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구 번역에서 나타나는 변주, 슬픔이나 극복의 음역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The following twenty-six translations highlight the spatio-temporal position of the speaker in this poem of survival. I wonder if survival feels both retrospective and continuous, as the tenses in translation range from simple past to even present progressive.

Verbs constitute the first eight lines of the eleven-line poem as a catalog of the speaker's actions over the course of their life. (Actually, I might call them reactions to life.) In Korean, conjunctions are conjugated with the verb, so the repetition comes at the end of each line per the subject-object-verb word order.

To carry over that grammar of ~다가, Anna Toombs, Sal Kang, Ainee Jeong, and Jennifer Gayoung Lee repeat the conjunctions **"and"** and/or **"then"** at the end of each line. Giulia Ratti conjugates in the past progressive to end each line with **~ing**. New epistrophes also emerge in translation, like Sung Ryu's sprinkling of **"some"** after each verb and Jin Oh's confident refrain, **"you hear?"** Emma provides real end rhymes: **way, midway, astray, stay, away, gray, day.**

Other translators choose anaphora instead, starting each line with the same preposition like Deborah Kim and Gene Png's **"after"** or Calista and Jaewon Che's **"as."** Non-prepositions include Emily's **"having,"** Emma Kay's **"and,"** and eyw's **"did."**

After all the verbs of reaction, the poem concludes with the speaker's claim to a longing of their own. The claim comes with a disclaimer — **아직은**, meaning "still" or "(not) yet" — intimating uncertainty and the possibility of loss. I'm still processing the variations of the phrase "still mine" and the different registers of grief or triumph throughout this issue.



의성어·의태어가 그림책에 많이 나오는 건  
리듬감에서 나오는 읽는 맛 때문이겠지요.  
어린이들도 재밌어 하고 기억할 수 있게끔  
**동시집 <고른베기>**를 쓰신 황금녀 시인님도  
아주 잘 아실겁니다.

표준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는 영어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풍부한데, 제주어는 그것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최돈미 선생님 이후로 한국어 시를 영어로  
옮기는 이들은 그의 '더블링' 기술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류승경 님과 김지현 님은 최돈미  
선생님처럼 동사를 붙여 써 의태어를 새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승경 님은 '머뭇거리다가'를  
**waverwavered** (흔들리다흔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최재원 님도 더블링을 구사하지만,  
동사 사이에 여백을 둡니다. 호영 님은 동사  
두 개씩 짝을 짓습니다: **stammer-muddle**  
(더듬-혼란), **shuffle-stumble** (느릿-비틀),  
**linger-dawdle** (머물-꾸물). 이가영 님은  
기존 의태어 **swish-swish**를 건져내고 '핑핑'을  
**pung-pung** 문자 그대로 씁니다. 줄리아 님과  
예원 님은 여러 동사를 쌓아 부사처럼  
사용합니다. 이와중 이유나 님은 반의어를  
가지고 '갈팡질팡'이나 '이리저리' 같은 느낌을  
냅니다.

그럼 동사가 없는 16편의 번역이 남습니다.  
운율을 살리거나 말거나, 다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리듬뿐만 아니라 사용역의 차이에도  
주목해보세요!

Onomatopoeia — words that sound like the noise they describe — is just one  
category of mimetic words, which can extend to descriptions of movement  
and emotion. Jejueo is said to have an even broader array of them than  
Korean, which is already far more developed than English in that regard.

There's a reason why onomatopoeia is most often found in picture books; a  
sentence like "Big trucks on the highway rrrrrrrumble, just as hunger makes a  
tummy grrrrrrumble" is fun to read aloud! Considering how Hwang Geum-nyeo  
also writes poetry for children, she may be using mimetic words to make  
Jejueo accessible and memorable for younger readers.

(Here I can't help but think of the TikTok hit **"My Money Don't Jiggle, Jiggle"**  
— there's something to be said about repetition, rhyme, and virality. Memes  
and mimetics.)

We who translate Korean poetry into English after Don Mee Choi are  
indebted to her technique of **doubling verbs** to recreate this rhythmic effect.  
Sung Ryu and Lauren Kim double their verbs without a space like DMC, while  
Jaewon Che keeps them spaced. Hoyoung pairs distinct verbs (**"stammer-  
muddle / shuffle-stumble / linger-dawdle"**). Jennifer Gayoung Lee utilizes  
existing onomatopoeia (**"swish-swish"**) or semi-transcribes the Korean  
(**"pung-pung"**). Giulia Ratti's **"shiffle-shuffle hesitating / tip-tap  
promenading"** and eyw's **"did shillyshally shuffle I / did dillydally dither I"**  
take on a similarly adverbial quality. Meanwhile, Eunice Lee plays with  
opposites (**"bumbled back and bumbled forth and / drifted left and drifted  
right and / lingered with you while you lingered here and / burst into  
laughter that burst into tears"**).

This leaves sixteen translations without doubled verbs. How else are they  
rhythmically descriptive — or decidedly not? Note the differences in not  
only rhythm but register.

tr. Sung Ryu 류승경

tr. grace 그레이스

## I Came to This Land And

I came to this land and  
waverwavered some,  
hoverhovered some,  
stayed with you some,  
laughed and cried some,  
white hair and wind rippleripple  
fat snowflakes patterpatter  
till I stand a snowman and  
still I cannot cool  
this wistful ache  
that is yet mine

## I came to this earth

I came to this earth,  
I dithered, I drifted,  
I tarried with you for a while;  
Choked back did I tears,  
Trading them for laughter,  
My white hair with the wind gone wild;  
And now at long last,  
I've turned a snow-person,  
As wet blizzard snow does descend;  
And yet this yearning,  
Burns as hot as ever,  
Mine still, as ever it has been.

from  
There Goes the Moon, Crystal Bright

from  
Brightly There Goes the Round Moon

tr. grace 그레이스

tr. Sung Ryu 류승경

from  
There Goes the Moon, Crystal Bright

from  
Brightly There Goes the Round Moon

승경 님은 동사를 반복하며 동요 같은 느낌을 수용하고,  
그레이스 님은 조금 더 높은 사용역의 동사를 씁니다.  
연세 있는 화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달이 저기 가네' 하며 시집 제목을 대화식으로 푼 게  
인상적입니다. '둥근 달이 청명케 넘어갑니다'가 아니고  
'넘어가네'이기에 **there goes**라는 표현은 섬세한 이해를  
드러냅니다.

Two takes on an older speaker: Sung embraces a nursery  
rhyme quality with her doubled verbs, while grace opts  
for verbs of a higher register.

The collection's title describes the moon's movement  
as if to make an observation to someone standing  
next to you. Sung and grace elegantly utilize  
the phrase **there goes**.

tr. Calista 황유림

## As I Came to This Land

As I came to this land,  
as I faltered,  
as I lingered,  
as I stayed by your side,  
as I laughed, cried, teared,  
and as my grey hairs gently danced with the wind.  
Snow falls heavily  
at long last, they pile up.  
But still, it doesn't end  
this warm yearning—  
it's still mine.

tr. Calista 황유림

from  
The Moon Moves, Round and Bright

tr. Dahyun Kim 김다현

## I Came to This Earth

I came to this earth  
Blinking and bemused  
Jittery with anxiety, then,  
Lingered a while with you  
Teared up with laughter and sorrow  
Felt white hair flow, swingswaying with time  
Snow, slowly freefalling,  
Transformed me into a being of frost  
But still, within me a flame  
Of grief  
Still mine to harbour, still mine to keep.

tr. Dahyun Kim 김다현

chogwa zine  
issue 12  
August 2022

12

from  
Full Moon Beaming Goodbye



tr. Calista 황유림

tr. Dahyun Kim 김다현

from  
The Moon Moves, Round and Bright

a snow woman (Jin)  
a snowperson (Sal)  
a snow-person (grace)  
a snow person (Emily)  
snowpeople (Deborah)  
a snow-body (Eunice)  
a snow figure (Jaewon)  
snowball (Hoyoung)  
snowon (eyun)  
a being of frost (Dahyun)  
the heavy snowfall,  
with which  
I became one (Si Yon)  
I finally froze  
in my linen gown  
They pile up (Calista)

눈남자의 언어로 '눈사람'을 어떻게 만들까요?  
직역할 수도 있지만, 다현 님은 a being of  
frost (서리의 생명체), 유림 님은 They pile  
up (그들이 쌓인다)라는 표현을 통해 눈사람에  
젠더를 부여하는 것을 비껴갑니다.

에이, 눈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지,  
시를 그 정도로 바꿔야하나 반발심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차별적인  
언어는 snowman 하나에서 그치지 않으니까요.

Dahyun's "a being of frost" and Calista's "They pile up" reflect how  
the Korean word for 눈 is not marked by gender. Does gender-inclusive  
language draw excessive attention to itself or to the biases codified into  
language? Are these alternatives unfaithful to the simplicity of the Korean  
word, or does English betray the gender neutrality of the Korean?

Look, I'm not arguing that "snowman" is a term in urgent need of  
reexamination like sexist language in healthcare access or occupational  
titles. But if we can reword "mankind" as "humanity,"  
I'm sure we can work something out.

tr. Calista 황유림

tr. Dahyun Kim 김다현

tr. Deborah Kim 김데보라

tr. Stine An 안수연

## after reaching this land

after reaching this land  
after hesitating  
after wandering  
after lingering with you  
laugh-crying on the verge of tears  
white hair fluttering waving with the wind  
fat snowflakes fell furiously  
at last becoming snowpeople  
even so till the end  
this longing doesn't melt  
it is still mine

## I came to this land

I came to this land  
and I lingered  
wandered around  
then anchored with you  
on the cusp of laughter, tears  
my snowy mane rolled with the rolling wind  
and with the thick snow that falls and falls  
at last I became a snowman  
but what in the end refuses to temper  
is this still yearning  
of mine

from  
The Round Moon Is Passing Serenely

from  
As the Round Moon Crosses the Bright Sky

tr. Stine An 안수연

tr. Deborah Kim 김데보라

from  
As the Round Moon Crosses the Bright Sky

While other translations have the speaker already shedding tears, Deborah's speaker is "on the verge" while Stine's is "on the cusp." The detail feels quite important the more I think about it, given the passivity of the preceding verbs, whether it be hesitating or loitering.

tr. Stine An 안수연

tr. Deborah Kim 김데보라

다른 번역가와 달리 데보라 님과 수연 님은 '울먹거리다'를 울음이 터지기 전의 상태로 그리며 ~할 지경, ~의 직전이라고 번역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서성이는 것도 울먹임처럼 소극적인 동사이기에, 생각할 수록 중요한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from  
The Round Moon Is Passing Serenely

## In Coming to this Earth

In coming to this earth  
 words staying in my mouth  
 feet failing to make forward  
 shedding smiles, shedding tears  
 white hair swaying with the wind  
 fleeces of snow falling  
 finally becoming a snowman  
 through all this, never growing cold  
 this longing  
 so far, is still mine

## As I Am Sent to This Island

As I am sent to this island  
 as I stutter stutter  
 as I stumble stumble  
 as I stay with you  
 as my joys and tears weep  
 as my white hair sways sways with the wind  
 swarming snowflakes spiral spiral  
 as I finally become a snow figure  
 yet this longing  
 that smolders smolders, still  
 is with me, still



Dabin underscores the uncertainty of *아직은* by adding "so far." The insistence of Jaewon's twice-repeated "still" at the end has a similar effect — just try reading their last two lines without "still."

Jaewon, Erik, and Jack modify 땅 (earth/land) to 섬 (island) to befit the poet's biography.

다빈 님은 still에 so far을 덧붙여 '아직도'도 아닌 '아직은'의 불안을 강조합니다. 마침표처럼 두 번 반복되는 재원 님의 still 또한 여운을 남깁니다.

재원 님, 에릭 님, 새벽 님은 '땅'을 '섬'으로 명시하며 시인님이 제주 출신임을 반영합니다.

tr. Erik Sandstrom 에릭 샌드스트럼

tr. Si Yon Kim 김시연

## Born on this Island

Born on this island  
I wavered  
I wandered  
For a while, I was with you  
Weeping laughter and tears  
White hair waving with wind  
Clumps of snow flow down  
and I become a snowman  
Yet this yearning still burns  
Uncooling  
It is mine

## Born unto this earth, I

Born unto this earth, I  
hesitated  
and hovered  
before being with you,  
felt so much happiness and sadness  
until my white hair fluttered with the wind,  
then came the heavy snowfall,  
with which I became one,  
but still warm to the touch  
was this here longing  
—to still be able to call it mine.

tr. Si Yon Kim 김시연

tr. Erik Sandstrom 에릭 샌드스트럼

from  
The Full Moon Goes Round the Clear Night Sky

Erik and Si Yon literalize the speaker's earthly arrival as a birth. The different prepositional phrases — Erik's "born on," Si Yon's "born unto," and even Jaewon's "sent to" — seem to reflect a different take on spirituality. How do we come to exist? Why are we born?

에릭 님과 시연 님은 화자가 땅에 도착한 일을 출생으로 풀이합니다. 에릭 님은 born on (~에서 태어나), 시연 님은 born unto (~에게로 태어나), 그리고 재원 님은 sent to (~으로 보내져), 이렇게 각각 다른 전치사구를 썼는데, 번역가마다 존재에 대한 철학을 펼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요? 어떤 이유로 태어날까요?

from  
Round Moon Brightly Surpasses

tr. Emily 에밀리

tr. Hoyoung 호영

## I Am Here

I am here in this land,  
having wavered,  
having wandered,  
having stayed with you,  
having laughed, sobbed, held back tears,  
white hair fluttering in the wind,  
having become a snow person  
where the thick flurries fall,  
but this unyielding  
longing  
is still my own

## my brief time on this earth

my brief time on this earth  
i stammer-muddle  
shuffle-stumble  
linger-dawdle with you  
laughter, tears fill to the brim  
white hair willows with the wind  
sky thick with snow until  
i become snowball  
but even that hasn't cooled  
this heart  
mine still

from  
The Round Moon Falls Brightly

from  
round moon blue crossing

tr. Emily 에밀리

tr. Hoyoung 호영



from  
The Round Moon Falls Brightly

에밀리 님은 I Am Here (나 여기 있다), 호영 님은 my brief time on this earth (지상에서의 나의 짧은 시간)으로 시 제목을 상당히 바꿨는데요, 한 분은 공간에 초점을 두고 한 분은 시간에 뒤서 특히 흥미롭습니다.

I find these two changed titles interesting especially because Emily focuses on location and Hoyoung on duration.

from  
round moon blue crossing

tr. Eunice Lee 이윤키나

tr. Lauren 지현 Kim

## I arrived upon this earth and

I arrived upon this earth and  
bumbled back and bumbled forth and  
drifted left and drifted right and  
lingered with you while you lingered here and  
burst into laughter that burst into tears and  
let my hair, white and loose, float on wind like foam on waves and  
let huge snowflakes pour and pour on me  
until I became a snow-body and yet  
one thing that hasn't succumbed to the coldness of it all  
is my longing  
this longing, still warm, has yet remained my own

## I I came to this land

I I came to this land  
Hesitating  
Standing around Anchored to  
youyou  
Laughcryingcrying  
Gray hair flutterfluttering  
with the wind  
Snow's falling lotslots i'm  
Finally becoming a snowman  
But still my longing isn't  
cooling down  
So I guess it's still Mine

tr. Lauren 지현 Kim

tr. Eunice Lee 이유나

At the Hapjeong event, Eunice revealed that she counted the number of Jejuo syllables to replicate in her English translation. Meanwhile, Lauren experiments with spacing to create a visual rhythm of her own. She elaborated over email,

¶ Since both “나 이 땅에 왔다가” and “이 땅에 왔다가” are grammatically correct, I repeated the subject pronoun “I” to emphasize the presence of the speaker in the poem. I also used indents along with capitalization to signify original line breaks, despite my experimentation with the form of the poem in English.

On another note, I’ve never seen anyone translate the author’s name! Hwang Geum-nyeo can indeed be read as “Golden Girl” or “Golden woman,” as Lauren and Ainee put it. I did ask if there was a Hwang Geum-nam or “Golden Boy” in the family, and the poet was amused by this.

합정 행사에서 유나 님은 제주어 시의 음절 수를 세어 영어 번역본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현 님은 행간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만의 시각적 리듬을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가님의 성함 번역도 등장했습니다. 지현 님은 황금녀 시인님 성함을 Golden Girl, 아인 님은 Golden woman으로 번역했습니다. 제주 행사에서는 혹시 시인님 가족 중에 황금남 님도 계시는지 물어봤고, 시인님도 재밌어하셨습니다!

from  
The round moon's passing clearclear

from  
The Fulllest Moon, Its Brightest Dive Across the Sky

tr. Lauren 지현 Kim

tr. Eunice Lee 이유나

## As I came to this land

As I came to this land,

I have been dawdling, you hear?

I have been loitering, you hear?

I have been together with you

at the same place, you hear?

I have been hiding my smiles, you hear?

I have been hiding my tears, you hear?

Grayed hair, waving slow with the wind

In the air, falling snow nicely ill timed

At last, I become a snow woman,  
only to find this longing never cools down

I guess it's still with me in my head

## Ever since I came to this land

Ever since I came to this land

I have been loitering

I have been lingering

and, I have been with you

Joyful moments that were ensured,  
Besides the tearful torments endured,  
Grayed hair, waving slow, to the wind  
In the air, falling snow, nicely ill-timed

At last, when I finally froze in my linen gown  
At long last, what still does not simmer down  
was my regardless longing

I guess my longing was here, with me, thus far



이번 호 참가자 중 유일한 제주 출신 번역가 성진 님은  
번역 두 편과 함께 1,201 단어 분량의 번역 노트를 첨부했습니다.  
시인님의 표준어 번역만 보고 번역하기 보단 제주어를 더 깊이  
이해해 파고드려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행갈이도  
바꾸고 라임을 위해 원문에는 없던 이미지도 더하고 있어, 번역가의  
개입도가 높습니다. 번역 노트에서 시집 제목에 대해 밝힌 관점을  
발췌합니다:

¶ “청명”하면 단순히 “맑은”보다는 정말 구슬이 가벼운  
유리 소리를 울리며 정말정말 작은 공간을 지나가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clear”보다 “swell”의 의미를 지닌 부사를 입혀주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넘어가고”는 뭔가 “넘어간 뒤에 홀로 남아있는  
사람의 느낌”이라서 시점을 잘 살려줘야 할 것 같다.

Across his two(!) translations, Jin introduces completely  
different lineation and even a rhyme scheme. He also  
attached a 1201-word translator's note in which he  
made it clear how he, as a Jeju native, wasn't basing his  
English translation solely on the standardized Korean  
provided by the poet.

tr. Sal Kang 강예서

tr. Jennifer Gayoung Lee 이가영

## I came to this land, and then

I came to this land, and then  
Hesitate, and then  
Pace back and forth, and then  
Linger by your side, and then  
A smile— Tears— Held them, ready to let out, and then  
White hair— danced danced swirling around with the wind, and then  
Snowflakes fall down down from above, but  
At last start becoming a snowperson, and then  
Still, this longing  
Which has not turned cold until the very end  
I understand It is still mine

## I came to this land, and

I came to this land, and  
went wandering, and  
lingering, and  
beside—you my-darling shuffling, and  
laughter—to-tears overflowing, and  
gray hairs swish-swish breezy fluttering, but then  
giant snowflakes go pung-pung, and  
already it's snowman-becoming, yet  
it still won't end  
this longing  
I see it's still mine

from  
round moon is sinking brightly

from  
the round moon's so illuminated

'내것이구나'는 '내것이다'와 확연히 다릅니다. 전자는 깨달음을 암시하는데 모든 깨달음은 전과 후를, 시간의 흐름을 내포합니다. 번역가 대부분은 아마 장황함을 피하려고 후자로 번역했겠지만, 성진 님, 예서 님, 가영 님과 예원 님은 그 깨달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내 그리움은 여기, 나와 함께,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아. 이해한다 아직 내 것이라는 것을. 아직 내 것인 게 보인다. 그래 내 것이네.

Jin's "I guess my longing was here, with me, thus far," Sal's "I understand It is still mine," Jennifer's "I see it's still mine," and eyw's "I see is aye my lot" are more than simple claims to ownership. The Korean conjugation implies a realization of some kind, and all realizations involve a before and after. Most translators were probably avoiding wordiness, but Jin, Sal, Jennifer, and eyw try to express that time-earned realization.

from  
round moon is sinking brightly

from  
the round moon's so illuminated

## I have come to this land

To this land I have come  
shuffle-shuffle hesitating  
tip-tap promenading  
with you I remain, staying  
our laughs and tears close to crying  
white hair in the wind flip-flapping,  
pom-pom fistfuls of snow tumble down  
eventually a snowman becoming,  
yet not melting until the end  
this longing of ours  
is still mine

## To This Land I Did Come

To this land I did come  
did shillyshally shuffle I  
did dillydally dither I  
did dwell in this gather with yon  
abrim in joy and abrim in tears  
white hair dulaundula with the wind  
And when snow fell thick in tufts  
did at last turn into a snowon  
but still withal it burns won't scatter  
This longing  
I see is aye my lot



tr. Giulia Ratti 줄리아

tr. eyw 예원

줄리아 님은 '발을 끌며 느릿느릿 걷다'를 뜻하는 동사 shuffle을 가지고 shiffle-shuffle이란 의태어를, 예원 님은 아마 '파도 모양을 이루다'를 뜻하는 동사 undulate를 가지고 dulaundula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의태어는 '엇금엇금'처럼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만, '울긁불긋'이나 '엇치락뒤치락'처럼 의미가 상반되나 소리는 유사한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두 분이 만든 새로운 단어가 더 재밋고 통찰력 있게 느껴집니다.

How iconic of Giulia to coin "shiffle-shuffle" and eyw "dulaundula"! Korean mimetic words don't always double the same word and instead pair very similar sounding antonyms, so I respect the way Giulia and eyw vary the vowels here.

from  
The Round Moon Blazingly Crosses the Sky

from  
Round Moon Setting Bright and Clear

tr. eyw 예원

tr. Giulia Ratti 줄리아

tr. Emma Kay 엠마

tr. Hannah Kim 김하나

## To This Ground, I Found My Way

to this ground, I found my way  
and stalled midway  
and strolled astray  
and with you, I chose to stay  
and laughter, lament, faltered breaths tucked away  
and hair in the wind, fluttering silver gray  
and though the heavy snow gently  
becomes a snowman in its final day  
as ever the shadows darken  
this empty room  
and still, I am waiting for dawn

## To this earth I came and now I go

To this earth I came and now I go  
I hesitated  
I loitered  
I stayed a while, with you.  
At times I laughed, at times I cried, at times I was on the verge of tears.  
My white hair passively undulated in the wind  
meaty snowflakes came pounding down  
and at last I became a snowman.  
But even then, it didn't cool down  
this stubborn longing  
it is still mine.

from  
How Brightly the Full Moon Passes

from  
look, the round moon is fully setting

tr. Emma Kay 엠마

tr. Hannah Kim 김한나

예원 님, 엠마 님과 한나 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동사를 늦추며  
원문 제목의 어순을 살립니다. 줄리아 님은 첫 행부터 그렇게  
운을 땁니다.

앞서 설명한 동사 undulate은 머리카락을 묘사하는 단어로는  
낯설지만, 하지만 의태어 '너울너울'과는 어울립니다.  
그래서 한나 님은 그대로 undulate를 쓰고, 예원 님은  
새로운 의태어 dulaundula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eyw, Emma, and Hannah begin the title of the poem with  
"To This" presumably to delay the verb and approximate  
the Korean word order. Giulia does, too, in her first line.

Undulate, a verb most often associated with tidal  
movements, is an unusual descriptor for hair —  
but it matches the Korean mimetic word 너울너울, which  
can be translated as "swellswell." Hence Hannah's "My  
white hair passively undulated in the wind," eyw's  
"white hair dulaundula with the wind," and even Sung's  
"white hair and wind rippleripple."

from  
How Brightly the Full Moon Passes

from  
look, the round moon is fully setting

tr. Ainee Jeong 정아인

## While on this earth

I came to this world and then  
I hesitated and then  
I hovered and then  
I stayed with you and then  
laughter and lament and the verge of tears and then  
gray hairs sway sway waved in the wind and then  
bulky snowflakes are plummeting plummeting down  
finally I'm a snowman and yet  
it still won't cool  
This want  
It's still mine

from  
round moon, in[can]descent

tr. Gene 진

## After Coming to This Land

after coming to this land  
after dawdling about  
after strolling around  
after staying a while with you  
after laughter and tears  
after silver hair fluttering in the wind  
clouds of snowfall  
have turned me into a snowman  
and this yearning  
ever warm  
is still mine

from  
Look How Brightly the Round Moon Goes

tr. Ainee Jeong 정아인

tr. Gene 진



tr. Ainee Jeong 정아인

tr. Gene 진

한나 님과 진 님은 시집 제목 번역을 통해 읽는 이에게 달을  
보라고 초대합니다. 달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만큼 클래식한 게  
또 있을까요?

아인 님은 '청명케'를 표현하기 위해 '눈부시게 밝은'을 뜻하는  
형용사 *incandescent*을 쓰고, '넘어가네'를 표현하기 위해  
'하강하는'을 뜻하는 표현 *in descent*을 대괄호로 부각시킵니다.  
새벽 님 또한 *descent* 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는 두운법에  
초점을 둡니다.

The title of the collection feels inviting in Hannah and  
Gene's translations and reminds us why the imperative  
"look" (like "listen") is such a classic poetry move.  
Add the moon, and we've got ourselves a party.

Ainee brilliantly puzzles the title, with *incandescent*  
meaning "emitting light" and containing the phrase  
*in descent*. Jack also uses the word *descent* in his  
lavishly alliterative title.

from  
Look How Brightly the Round Moon Goes

from  
round moon, *in[can]descent*

tr. Ainee Jeong 정아인

tr. Gene 진

tr. Jack Jung 정새벽

## this island i landed i

this island i landed i  
wavered and hovered on this land i  
could not stand still i  
stayed awhile with you  
choking on laughter and tears  
white hair dancing to the wind's beat  
then the snow  
until at last i was a snowman  
until at last this heat  
from such longing  
reminded me it belonged to me

tr. Anna Toombs 톰스안나

## I Landed Here, Then

I landed here, then  
Dithered around, then  
Strolled around, then  
Stayed awhile with you, then  
Smiles turned to tears, then  
White hair fluttered and flowed, then  
Fat snowflakes fell heavy and  
At last, formed a snowman, then  
What never grew cold was  
This longing  
It stays here with me

from  
The Full Moon Passes Clearly

tr. Anna Toombs 톰스안나

tr. Jack Jung 정새벽

tr. Anna Toombs 톰스안나

Jack and Anna recast the noun "land" into its verb form.  
Talented, brilliant, incredible, amazing, show stopping,  
spectacular, etc.

Because English is a ridiculous language,  
the s in "island" is silent: island.  
See what Jack did there?  
Not unlike Ainee's maneuver!

tr. Anna Toombs 톰스안나

tr. Jack Jung 정새벽

tr. Jack Jung 정새벽

새벽 님과 안나 님은 land가 명사로서 '땅'을 뜻하지만 동사로서는  
'착륙하다'도 뜻하는 점을 살려 제목을 참신하게 지었습니다.

아인 님처럼 새벽 님도 언어유희를 했습니다. '섬'을 뜻하는  
island는 s 없이 발음됩니다. S 없는 island는 뭘까요?  
I land (나는 도착하다) 입니다!

chogwa is going on hiatus!  
More to follow at our socials.

재활과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

기획/편집. 소제 @chogwazine  
디자인. 아페퍼 @ap3pp3r  
감수. 호영 @rekognition\_f  
후원. 일다 @itta\_publishing

Produced by Soje  
Designed by Apepper  
Proofread by Hoyoung  
Sponsored by Itta Publishing